

관리되지 않는 의약품은 결국 병원의 고정비용입니다.

**있는 줄 몰라서 또 사고
유효기간 지나면 버립니다.**

**“이제라도 줄줄 새는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원내 의약품 관리의 불편한 진실

우리 병원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이 있습니까?



가장 많은 답은 “있다”. 그다음은 “모른다”. “없다”는 소수였습니다.

방치와 관리 공백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개선해야 합니다.

실제 행정처분 사례 | 유효기간 하루 지난 의약품 사용

“**딱 한 번**”이어도,
면허정지는 남았습니다.



한 번의 접종



고의 없음



확인된 환자 피해 없음



행정처분 결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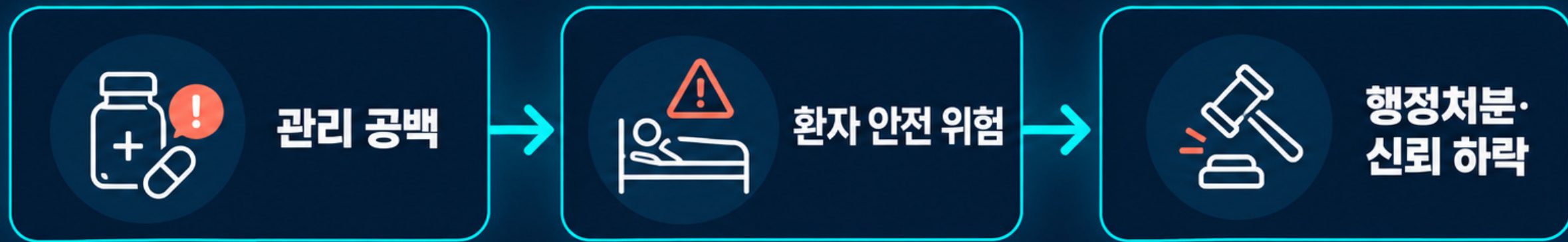
의사면허 자격정지 **45일** 처분

최초 3개월 처분은 취소 → 사정 반영해 45일로 감경 → 후속 소송에서 유지

보이지 않는 위험이 청구하는 비용

환자에게 쓰이기 전에 찾아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사용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처분과 신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뒤의 회복 비용은 예방 비용보다 큽니다.

보이지 않는 관리를 보여주는 방법

안전은 말보다, **확인할 수 있는 표시로.**

식당의 위생 관리 표시



병원의 의약품 안전관리 표시



환자는 의약품이 어떻게 보관·관리되는지 볼 수 없습니다.
점검 결과를 보여주는 표시는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잘하는 병원은 많습니다. 안전을 보여주는 병원은 다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검수완료 인증마크로
환자가 안심할 근거를 보여주세요.

말로 하는 약속을 넘어, 눈으로 확인하는 안전.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병원입니다.

병원의 안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그 직원이 **알아서 잘해요**”라는 믿음이 안전 체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정 직원의 기억과 습관에
기대는 관리



휴가·퇴사와 함께
사라지는 관리 기준



문제 발생 후에는
복원하기 어려운 기록

주사 이모 논란이 드러낸 의약품 관리 공백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473회(2026. 1. 24.)에서 소개된 제보

1 | 방송에서 소개된 제보



병원에 보관된 주사제가
병원 밖에서 사용됐다.

2 | 병원 측 설명



원장은 직원이 퇴사하며 털어놓기 전까지
반출 사실을 몰랐고, 독감주사제 외
영양주사제 반출 정황도 뒤늦게 알았다.



원장이 모르는 사이,
의약품은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주사 이모 스캔들」, 2026. 1. 24.

원장님이 짊어져야 할 보이지 않는 무게

관리 체계의 공백은 **손실**과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직원의 사소한 실수

폐기·재고 손실

법적 분쟁

신뢰 하락

행정처분



유효기간 점검 누락은
폐기와 **재고 손실**로 이어집니다.



사고 후에는
경위와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장님 혼자 점검하고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 역량 → 시스템 역량

더 이상 원장님의 '인복'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기억보다
병원의 기록



사람을 탓하기보다
흔들리지 않는 환경



개인의 역량에서
시스템의 역량으로

AI 기반 솔루션의 지원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원장은 **쉽게 확인**합니다.



재고 확인



유효기간 점검



조치 이력

— AI 기반 의약품 안전관리 솔루션 —

묻기만 하면, 필요한 재고 정보가 바로 보입니다

유효기간 3개월 남은 재고 보여줘



대상 의약품 목록과 보관 위치를 확인하세요.



중앙약국



병동약국



응급실 약장

지난달 가장 많이 쓴 게 뭔지 알려줘



지난달 사용량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메뉴 대신, 평소 말하듯 질문하세요.

— 의약품 안전관리, 두 겹의 점검

매일의 관리에, 매월의 검수를 더하다.

01 병원 내부 교육받은 직원이 AI 솔루션과 함께 적접 관리

02 외부 전문가 매월 방문해 의약품 관리 상태를 다시 점검

원장님도, 환자도 안심할 수 있는 관리 체계



무엇이 달라지는가

기존 방식

AI 기반 솔루션

유효기간

담당자에게
문의



현황 확인



담당자 변경

구두
인수인계



기록 승계



이상 발생

상황
재구성



조치 이력 추적



직원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병원

기준과 기록이 남으면 **인수인계가 쉬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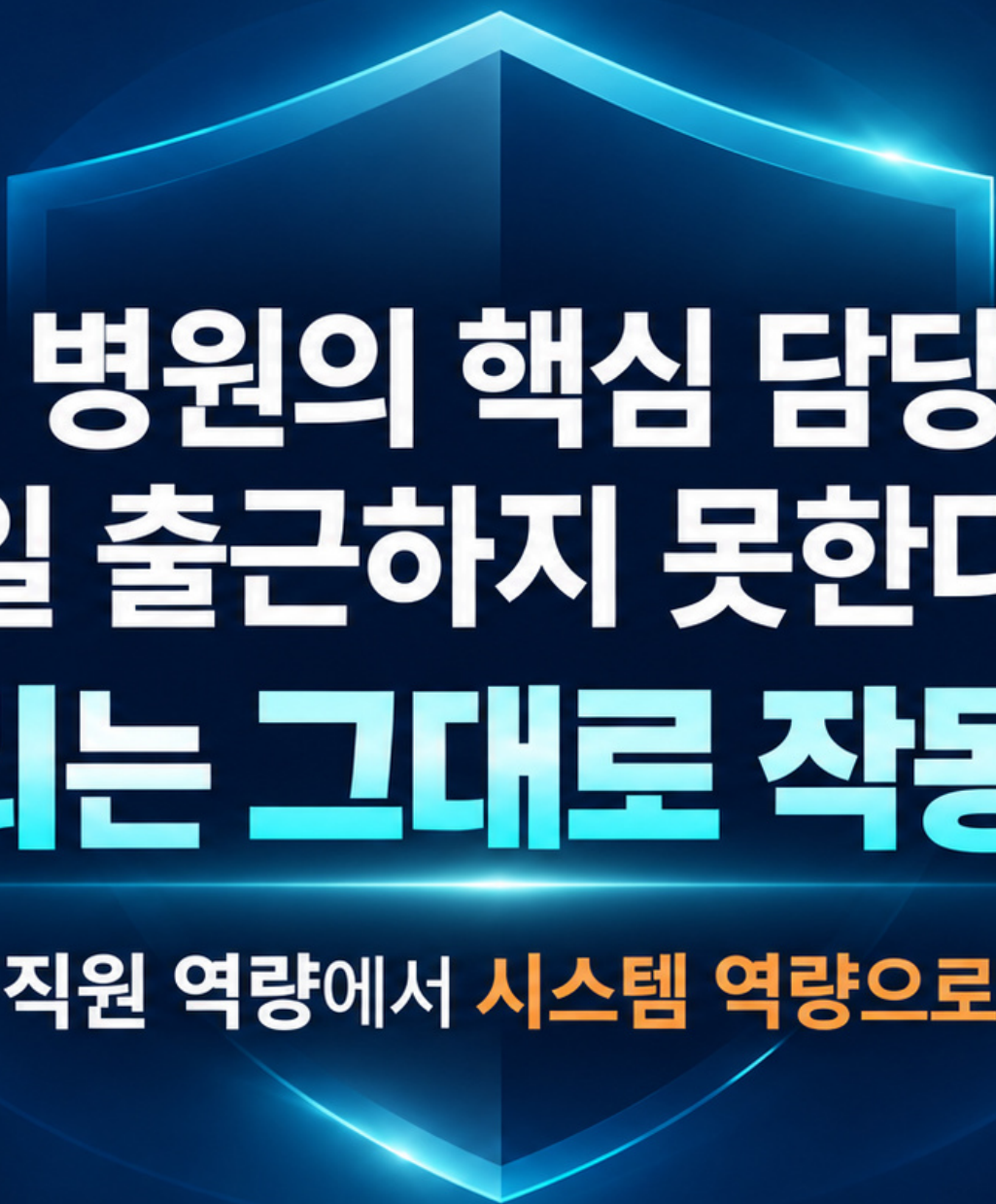
재고 현황



미완료 업무



조치 이력



우리 병원의 핵심 담당자가
내일 출근하지 못한다면,
안전관리는 그대로 작동합니까?

직원 역량에서 **시스템** 역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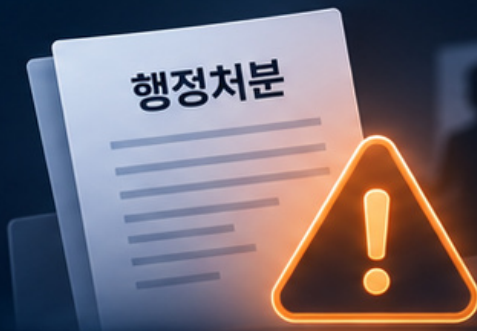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

“꼭 필요한 건 알겠는데,
안 쓰던 비용이라 부담되는데...”



이미 매년 최소 **수백만 원**

재고 손실·폐기 비용으로 지출



행정처벌의 손실은 **비교 불가**

직원 실수·내부고발이 사고로 이어질 때



실비 0원 이용 방법

메디세이프코리아가 안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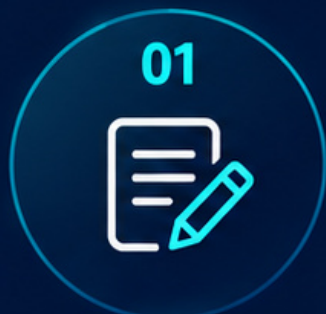


먼저 상담받고, 우리 병원에 맞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더 미루지 마세요. 우리 병원의 안전을 지금 확인하세요.

무료 진단으로 원내 의약품 관리 실태와 임직원의 안전관리 인식을 점검하세요.



무료 진단 신청



AI 기반 솔루션·전문가
방문 관리 비용 지원 상담



개선 후 의약품 안전관리
검수완료 인증마크 준비



QR코드를 스캔해 신청하세요



지원 요건 충족 시 원장님 자부담 **0원** 가능



문의 **010-6558-3365** | 이동진 대표